

음악교육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조사 연구

Research 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Deliberation in th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윤관기*

Gwan Ki Yun^{ID}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음악교육 학술지의 기관(공용)IRB 심의현황을 파악하고,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인식 확장 및 생명윤리인식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생명연구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음악교육연구’에 수록된 논문(430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는 177건을 범주화하고 질적 자료를 양적자료로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내용분석기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인간 대상 연구는 매년 꾸준히 출간되었으며, 연구 대상도 43개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성인대상연구가 미성년대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방법은 인간 대상 연구로서 양적연구가 62.2%(110건), 질적연구는 30.5%(54건), 그리고 혼합연구는 7.3%(13건)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관(공용)IRB심의를 받고 진행했다고 밝힌 연구는 2020년(49권호)에 처음 제시되었으나 기관 승인번호까지 밝힌 연구는 2023년(52권호)에서야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음악교육연구, 인간 대상 연구, 생명연구윤리법,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내용분석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IRB review of academic journals published by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to expand awareness of human subject research, and provide basic data related to IRB. For this study, a full-scope examination was performed on all 430 papers published in the ‘KJRME’ spanning the period from the 2013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up to 2024. Of these, the 177 articles identified as human-subject research were subsequently categorized, utilizing content analysis, a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ransforming and analyzing qualitative data into a quantitative forma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3 to 2024, human subject studies were consistently published every year, and the subjects of the studies ranged from infants as young as 43 months to the elderly. Among them, studies on adults were found to be more numerous than those who are underage. Second, the research methods were human subject research, with 62.2% (110 cases) being quantitative research, 30.5% (54 cases) being qualitative research, and 7.3% (13 cases) being mixed method research. Finally, the study that first disclosed IRB review was published in 2020(Volume 49), and the study that disclosed institutional approval numbers appeared in 2023(Volume 52).

Key word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human subject research, bioethics and safety act, Institutional Review Board, content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rinyes@gnue.ac.kr

Associate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South Korea

Received: 31 May 2025, Reviewed (Revised): 10 July (17 July) 2025, Accepted: 6 August 2025

© 2025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자연에 대한 탐구로 출발한 학문(學問, philosophy)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 참다운 앎을 찾고, 그 앎을 향한 진리추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적 의미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실재하는 존재에 대해 논리적으로 인식하며,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그 과정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연속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한다(Seong & Si, 2022). 이렇듯 학문에 대한 연구는 다층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을 구체적 자료 분석과 다각적 접근을 고려하여 실행해야 한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대상의 목적에 따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분류한다. 학문분야는 학문의 내용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더욱 세분화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학문의 영역 또한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생산해 내고 있다(Seong & Si, 2022).

연구자들은 자신의 학문연구 활동으로 정신적 가치와 진리를 탐구하며, 수행의 결과가 인간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가치적인 하나의 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새로운 학문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업적을 쌓고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각 분야에서 학술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윤리적 문제의 발생으로 진의가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윤리(대표적인 2005년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그 쟁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마다 정책이 다른 차이로 그 실효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고, 다시 2012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생명과학이나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치료 분야 연구영역은 그 전문적 규범을 갖추어야 한다는 협의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Cho, 2012; Cho, 2018; Ju, 2019).

생명윤리는 연구윤리의 한 부분으로 과거 인체유래물이나 임상연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사회행동과학 분야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설치되어 운영되며,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Cho, 2018; Lee et al., 2017). 학문의 발전은 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증명되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제약으로 인한 연구 위축은 확실적인 연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를 고려한 연구계획부터 연구 종료 후에 관련 데이터까지 철저히 관리가 되었을 때 그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음악교육의 커다란 중심에선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양상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음악교육분야의 생명윤리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명윤리연구

인간의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한 윤리적 숙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바람직한 공동체적 접근을 고민하며, 생명과학 및 의학과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자의 전문적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Ju, 2019). 연구윤리에 대한 논쟁은 홀로 코스트와 매독 생체실험, 그리고 독일 과학자들의 비인간적인 실험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이 만들어지며 시작되었고, 이후 1964년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통해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은 1974년 미 의회에서 제정된 국가 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에 따라 규정된 IRB에 의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Human subject research)가 관리 감독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Chung et al., 2021; Jo, 2018; Kim & Kim, 2014).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2조 1호에 근거하여 ‘인간 대상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입,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연구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생명을 다루는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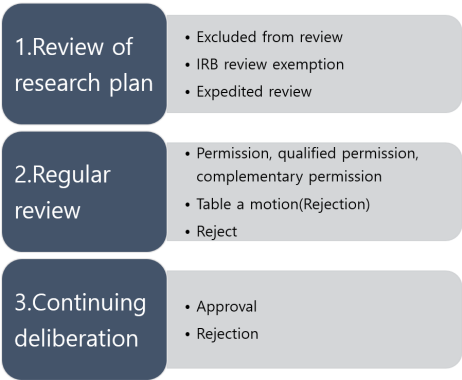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는 2012년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IRB)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하, 공용IRB)를 운영하여 연구자들을 돕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기본 정책에 따라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다음 <Table 1>과 같다(Jo, 2013, p. 3).

<Table 1> Differences between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Division	Bioethics ethics	Research ethics
Purpos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Prev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Rules/Regulations	Bioethics and safety act	Ensuring research ethics (Ministry of education directive)
Main contents	Protecting the safety or research subject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ng self-determination rights (consent, specimen disposal, etc.)	Prev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forgery, falsification, plagiarism, etc.)
Responsibility	Head of affiliated organization	Individual researcher
Regulatory approach	Legal regulation	Self regulation
Autonomous organiz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정부 정책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연구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계획서에는 연구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예상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 손실 보상과 같은 사항과 같은 사항의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Figure 1]은 기관IRB 심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IRB review procedures

기관IRB는 연구계획서 검토과정을 거쳐 심의를 면제해 주거나 신속, 정기, 그리고 지속심의를 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계획서를 검토 후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연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닌 경우는 심의제외,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는 심의면제, 그리고 연구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여 승인하게 된다. 정기심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연구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의하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안전대책 마련 여부와 연구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한다. 지속심의를 다년 연구로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중대이상이 발견된다면 연구계획서 변경을 통해 승인과 부결 심사가 진행된다. 무엇보다, 생명윤리법 제3장에서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기관(공용)IRB 심의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연구 수행에 앞서 독립적인 승인을 받아 연구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국제·국내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관(공용)IRB 승인 정보를 공개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학술적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대상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방법에서 기관(공용)IRB의 승인 기관의 이름, 승인 번호, 승인 날짜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연구 윤리의 기본이며 논문 게재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2. 연구방법론의 종류

과학은 사물의 법칙과 함께 이치를 바로 알고 올바른 지식체계를 밝히는 학문으로 과학을 ‘자연과 인간의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탐구행위(Seong & Si, p. 22)’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학은 지식을 얻는 방법을 말하며 구조화된 지식이 바로 과학인 것이다. 연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인문과학(정치·경제, 사회·문화·교육 등)과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구분된다. 인간을 중점으로 두었을 때 인간을 제외한 사물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학으로, 인간을 둘러싼 문제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인문과학, 사회·행동과학으로 등으로 세분화)에 해당한다(Borg & Gall, 1989; Seong & Si, 2022).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를 선정하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자료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되어 수집되고 연구된다.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조사와 실험, 그리고 관찰이라는 방법은 양적연구의 경우이며, 자료가 수량화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찰에 의해 서술하는 방법은 질적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연구모두 연구자가 세운 잠정적 가설이 옳고 그른지를 검증하여 결론을 유도하는 사실은 같으며 때에 따라 새로운 이론도 창출하게 된다(Seong & Si, 2022).

교육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식론적 접근방법, 연구 목적에 따른 방법,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인식론적 접근법에 의해 구분되는 양적연구는 자연과학 연구 방법에서 기초한 방법으로 궁극적 목적은 설명과 예측으로 이론(theory)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즉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가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Baek, 2006; Seong & Si, 2022). 사회과학방법론에서의 양적연구는 설문이나 실험으로 수집된 자료를 정량화(quantification)하여 기술과 추리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Babbie, 2007; Creswell, 2014; Henning, 1986). 질적연구는 후기 실증주의 출현으로 등장하였으며 연구가 이론적이며, 주제가 제한적이고, 가설설정에서부터 특정 이론에 함몰되어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출현하였다. 무엇보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연구내용, 대상, 시기에 따라 다양하며 연구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기계적 접근방법을 지양(止揚)하게 됨에 따라 방법과 절차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질적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는 연구 방법이 단순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문제 상황을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여 검토하거나 진행되는 상황의 결과 개선에 목적을 둔다. 가령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수법을 조사하거나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교육학과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교육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형태이다. 주로 연구자와 교사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문제해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실행연구는 이론적 개념 전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시하기보다 연구대상에게 국한되는 연구이다. 평가 연구(assessment research)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로 도달한 목표치의 측정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은 학생들의 학업 진행 속도와 정보의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개선하거나, 교재를 새롭게 적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이다.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실험연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를 조작한 결과로 생기는 효과 검증을 통해 특정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로 관련변수를 통제하거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가장 타당성을 지닌 연구 방법이다. 조사연구는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설문지와 면접법과 같은 체계적 방법을 통해 전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와 관련된 대상의 행동이나 태도, 속성 등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관찰연구의 경우는 관찰자의 시각과 청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동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관찰자에 의해 연구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찰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이다. 문화기술연구는 인류학적 성격을 가진 연구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로 해당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연구이다(Seong & Si, 2022).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기본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객관적 시선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고 있듯이 각 영역에서 그에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숫자놀음이니 개인적 소설이니 하는 비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 <Table 2>는 연구 방법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Types of research methods

Epistemological approach	Research purpose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action research(Field research), assessment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survey research, observational research, ethnographic research, historical research

3. 음악교육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는 1956년 ‘음악교육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을 책임져온 학회로서 그 역사는 70여년에 이르고 있다. 그 긴 세월동안 학술대회(춘계, 추계, 여름집중), 세미나, 교사연수, 음악회, 강습, 그리고 콜로키움을 통해 시대별로 요구되는 학문적 고뇌와 음악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문 소개 및 국내·외 기관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음악교육학회가 발간하는 ‘음악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이하, KJRME)’는 1973년 5월부터 국내 최초의 공식 학술지로서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음악교육연구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을 책임지는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IF)지수 2위(예술체육학-음악학분야)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예술체육학분야 153개 학회 중에서 등재지를 거쳐 우수학술지(음악학 20종 중 유일함)로도 평가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스킵스(Scopus)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 내용과 학문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음악교육연구는 음악학분야의 여타 저널과의 차별화를 두고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육사,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수법 등을 포함하며 연구 대상은 유아부터 성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지지 않고 결합되어 음악교육영역에서 실제적 적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 윤리의 엄격한 준수를 최우선으로 2008년 연구윤리규정을 처음으로 실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제1장 제1절 제9조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RB의 생명윤리법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받아 논문에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Korean Music Educator Society, 2025a, 2025b).

그동안 분석된 음악교육연구들은 연구 동향이나 사례 분석으로 연구 방법, 대상, 그리고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된 것들이 대다수였으며, 문헌중심의 편중된 연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다양한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Choi, 2000).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 증가와 연구 방법의 세분화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분석되었으며, 특정 시기마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영향아래 다양한 음악형태에 대한 실험적이고 질적인 연구 비중이 증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Jeong & Seog, 2014; Seog, 2004; Seog, 2014; Won, 2006).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음악교육연구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최근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윤리의 엄격한 이해를 돕는 한편, 음악교육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안정성과 대상자를 보호를 통한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인 ‘음악교육연구’의 논문을 대상으로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실행된 연구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음악교육학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특정된 기간 전체 논문을 전수조사 하였다. 다만, 2022년부터 국제학술지 성격인 스코푸스로 승격됨에 따라 수록된 외국학자가 제출한 논문은 자국에 맞는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음악교육동향을 알리는 학술대회 요약본도 생략한 총 430편의 자료 중에서 인간 대상연구에 해당하는 177(41.16%)편의 연구 자료가 분석 대상이다. 음악교육연구는 2013년부터 년4회씩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1년 평균 35개 정도의 논문을 수록하여 출판하고 있다. 아래 <Table 3>은 연구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 Number of publications and papers by year in the KJRME

Year	Volume	Number of publications	Number of papers				Total	Research total
			First	Second	Third	Fourth		
2013	42	4	9	7	13	13	42	19
2014	43	4	11	8	9	12	40	19
2015	44	4	9	9	10	14	42	16
2016	45	4	6	11	9	7	33	18
2017	46	4	8	8	7	11	34	12
2018	47	4	8	11	8	9	36	18
2019	48	4	7	5	9	13	34	13
2020	49	4	10	9	5	13	37	12
2021	50	4	7	11	7	9	34	10
2022	51	4	8	6	9	8	31	11
2023	52	4	5	10	6	10(5)*	31	13
2024	53	4	10(2)	7(2)	7(4)	12(3)	36	16
Total							430	177

*(Number) is a paper by foreign scholar.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텍스트와 미디어 같은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여 조직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법은 질적 자료로서의 음악교육연구 논문을 해석하고, 양적 자료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로 쓰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Jeon, 2022; Ju, 2002). 분류 기준은 정진원, 석문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준거(연구년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영역)를 종합하였으며, 최진호가 제시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유형분석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시기,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기관(공용)IRB승인 유무 및 기관명과 번호로 구분하였고, 전문가 1인의 점검을 거쳐 범주화된 자료는 코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정리하였다(Choi, 2011; Jeong & Seog, 2014).

연구 시기는 생명윤리법의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설정하였다. 생명윤리법은 기존 임상 시험과 특수 분야는 물론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분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3장 제16조에 근거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써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취득해야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학령기 미성년 학생들과 성년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연구(설문, 실험연구 등)와 서술적이고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질적연구(면담, FGI, 관찰연구 등), 그리고 두 가지 연구가 함께 사용된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승인번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승인여부, 기관명, 승인번호 유무로 제시하였다. 다음 <Table 4>는 연구 분석을 위한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4> Research method analysis standards

Division	Contents
Year of study	2013~2024
Research subject	Underage: Kindergartn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legally a minor) Adults: Undergraduate music major, prospective kindergarten teacher,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e-service secondary teachers, childcare teachers, kindergarten teachers,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condary school teachers, university professors, lecturers, adults, seniors
Research method	Human subjects: Survey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method research, etc.
Types of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Public Institutional Review Board(Public bioethics committee)
Approval number of IRB	Institution name, approval number and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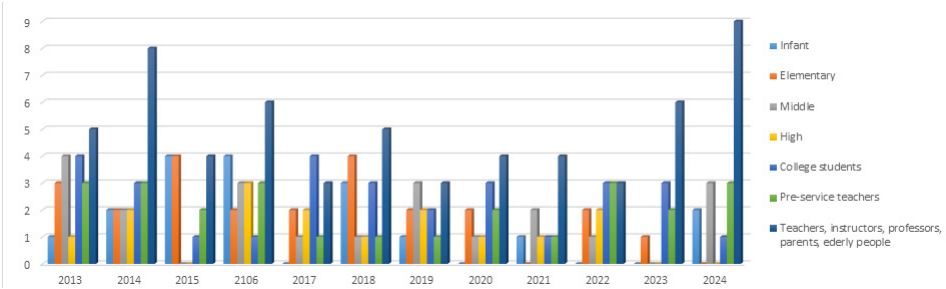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

인간 대상 연구는 미성년(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미성년 대학생)이나 성년(대학생, 예비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강사, 대학교수, 학부 모, 노인 등)으로 구분되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공용)IRB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교육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의 경우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미성년과 성년에 대한 연구들이 매년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2개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수록된 인간 대상 연구를 미성년과 성년으로 구분한 결과 미성년연구는 78건(40.6%)으로 성년연구는 114건(59.4%)로 조사되었다. 다음 <Table 5>와 [Figure 2]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이 하나에서 다수로 제시된 경우가 있어 중복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Table 5> Research subjects

Year	Volume	Research subjects							Total
		Underage				Adult			
		Infant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Teachers, instructors, professors, parents, elderly people	
2013	42	1	3	4	1	4	3	5	21
2014	43	2	2	2	2	3	3	8	22
2015	44	4	4	•	•	1	2	4	15
2016	45	4	2	3	3	1	3	6	22
2017	46	•	2	1	2	4	1	3	13
2018	47	3	4	1	1	3	1	5	18
2019	48	1	2	3	2	2	1	3	14
2020	49	•	2	1	1	3	2	4	13
2021	50	1	•	2	1	1	1	4	10
2022	51	•	2	1	2	3	3	3	14
2023	52	•	1	•	•	3	2	6	12
2024	53	2	•	3	•	1	3	9	18
		18	24	21	15	29	25	60	192
		78(40.6%)				114(59.4%)			



[Figure 2] Research subjects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설문 연구나 통계 연구와 같은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 표적집단면
접법(FGI), 면담 및 인터뷰 중심의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그리고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방법론이 결합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큰 틀에서 3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177건의 인간 대상 연구에서 양적연구 62.2%(110건), 질적연구 30.5%(54건), 그리고 혼합연구가 7.3%(13건)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법이 시작된 2013년도부터 음악교육연구는 양적연구의 형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점차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음악교육연구가 여러 이점을 가진 양적연구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질적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연구의 증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분석을 통해 보완적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들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Table 6>은 연구 방법에 따른 연도별 권, 편호수와 연구 방법들이다.

<Table 6> Research method

Year	Volume	Total	Total analyze (100%)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statistic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FGI, interview)	Mixed method research
2013	42	42	19	12(63.2%)	6(31.6%)	1(5.2%)
2014	43	40	19	14(73.7%)	3(15.8%)	2(10.5%)
2015	44	42	16	11(68.7%)	4(25.0%)	1(6.3%)
2016	45	33	18	14(77.8%)	4(22.2%)	·
2017	46	34	12	8(66.7%)	3(25.0%)	1(8.3%)
2018	47	36	18	12(66.7%)	4(22.2%)	2(11.1%)
2019	48	34	13	7(53.9%)	4(30.7%)	2(15.4%)
2020	49	37	12	6(50.0%)	5(41.7%)	1(8.3%)
2021	50	34	10	5(50.0%)	5(50.0%)	·
2022	51	31	11	6(54.5%)	4(36.4%)	1(9.1%)
2023	52	31	13	7(53.9%)	5(38.5%)	1(7.6%)
2024	53	36	16	8(50.0%)	7(43.7%)	1(6.3%)
Total		430	177(100%)	110(62.2%)	54(30.5%)	13(7.3%)

3. IRB 승인기관

기관IRB는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을 뜻하며, 공용IRB는 기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자에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한 연구를 공용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음악교육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간 대상 연구(115건으로 64.97%)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어느 현장연구사례는 교육청의 허락을 구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특수교육대상이나 성년 장애인 대상 연구에서는 기관의 협조를 구했다는 문구만 제시되었을 뿐 기관(공용)IRB의 진행 여부 또는 승인면제와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지만, 대학의 허락을 구했다거나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짧은 언급만 찾아볼 수 있었다. 2023년 연구에서는 기관(공용)IRB의 심의를 마쳤다는 내용과 함께 소속 기관명 및 승인번호가 제시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승인번호, 승인날짜, 기관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공용IRB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공용IRB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Table 7>은 출판년도 별로 기관IRB의 종류와 학교명, 승인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7> Types of IRB and approval number of IRB

Year	Amount	Types of IRB	Affiliation IRB	Approval number of IRB	Total
2013	19	None	None	None	•
2014	19	None	None	None	•
2015	16	None	None	None	•
2016	18	None	None	None	•
2017	12	None	None	None	•
2018	18	None	None	None	•
2019	13	None	None	None	•
2020	12	IRB	*Westminster Choir College of Rider University	None	1
2021	10	None	None	None	•
2022	11	IRB	*Seoul National University	None	1
2023	13	IRB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ung Ang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None verification number) *Chung Ang University (IRB No. 0000000-000000-HR-000)* *Ewha Womans University (Ewha 000000-0000-00)	3
2024	16	IRB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RB No.000000-SB-0000-00) *Arizona State University (None verification number), *Seoul National University (None verification number)	3

*Processed '0' a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4. IRB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문헌분석을 통해 대다수의 연구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은 ‘동의’라는 표현이었다.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중에서 비록 기관(공용)IRB의 심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생명윤리법이 도입된 시기의 논문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연구 도구 배포 및 수집 과정을 제3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문구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는 연구 목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 자발적 참여, 인터뷰 내용 및 녹음·녹화 허락, 연구 중단에 대한 안내와 같은 내용이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연구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관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여 수행하였다는 문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기관IRB의 심의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들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기관에서 승인해준 승인번호와 날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로소 2023년에 출판한 몇몇 연구에서 기관IRB의 승인번호와 날짜, 그리고 기관명을 함께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소수의 논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8>은 연구논문에서 연구자들의 생명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는 문구로서 논문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8> Researchers’ awareness of bioethics in KJRME

Year	Researchers’ notice on bioethics
2013	•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ubjective opinions are excluded by using the help o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researcher.
2017	• Obtaining consent for confidentiality of student personal information, research purpose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2018	• Obtaining consent from the institution and parents of the research subjects.
2019	• Consent was obtained by distributing to parents a consent form explaining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nstructions, and asking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study. • Obtaining permission from parents and research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film, and record the data.
2020	• The paper was written in English and received approval from the IRB of the researcher’s university.
2021	• During the research participant recruitment process, the purpose and content are explained and a consent form is signed. • The subjects were selected by obtaining consent from parents through distributing a consent form and an information sheet explaining the purpose and period of the study.

<Table 8> Continued

Year	Researchers' notice on bioethics
2022	• It is presented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RB approval was obtained. • The researcher was informed of the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nd consent for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as obtained. • To ensure research ethics and truthfulness, research participants are informed of their rights and asked for consent to be recorded. • The research description presents the research subjects with the content of asking for their consent to the research by expressing their consent or disagreement. • During the research participation recruitment process, consent forms are distributed to student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and the content is presented to recruit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2023	• Before starting the interview,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as obtained, and it was suggested that recording and videotaping were conducted. • The paper was written in English and received approval from the IRB of the researcher's university. • In accordance with research ethics regulations,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participants and their names were kept anonymous. • Participation in the study was voluntary and consent was obtained by agreeing to the online survey instructions. • The paper was written in English and they had permission from their legal guardians.
2024	• Obtain the research participants' understanding and consent regarding the purpose, nature, and process of the research. • Explain the details of research participation and use of data and obtain consent. • Explain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d use of the data, and proceed with the research. •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parental consent for kindergarten students. • Obtaining the research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rior consent regarding the research objectives and research methods. •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informed in detail of the research purpose, period, procedures, and discontinuation of participation through telephone calls and prior interviews, and consent was obtained. • The research subjects are presented as people wh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agree to the survey.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에서 기관(공용)IRB 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인식을 확장하여 연구자들에게 기관(공용)IRB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출간하고 있는 ‘음악교육연구’를 중심으로 기관(공용)IRB의 심의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생명윤리법이 개정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음악교육연구에 수록된 논문

을 전수 조사(430건)를 통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는 총 177건의 연구를 범주화하여 내용분석기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인간 대상 연구는 매년 꾸준히 연구되었으며, 그 대상도 43개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미성년대상 연구(40.6%)보다 성년 대상 연구(59.4%)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방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양적연구가 62.2%(110건), 질적연구는 30.5%(54건), 그리고 혼합연구는 7.3%(13건)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IRB의 심의를 받은 연구들은 2020년부터 발견되었으나 기관명과 승인번호, 그리고 승인날짜까지 함께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에서야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들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 개정 이후 의료 및 사회과학분야까지 인간 대상에 대한 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음악교육분야의 연구를 책임지고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학회 회원들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회가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회 학술지에 인간 대상의 연구 논문의 경우 기관(공용)IRB의 승인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논문심사 위원들의 인식 개선 및 꾸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충분히 생명윤리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학회지 제출 방법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지인 음악교육연구만을 분석하여 접근하였기에 음악교육분야의 전체연구를 대표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연구논문에 기관(공용)IRB의 제시 유무로서 연구자들의 생명윤리의식을 판단하기보다 관련 법률과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우선하기 위함을 밝히고자 한다. 후속 연구로는 연구자들의 면담과 인터뷰를 통해 보다 세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전수 조사를 통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연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2005년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관찰연구나 설문연구들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적 조작을 가하지 않아 윤리적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국제적 지침과 우려로 2013년 생명윤리법의 개정 이후로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연구는 대상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필수로 여기고 있다(Kim & Choi, 2006). 다만, 기관(공용)IRB 심의와 승인과정까지 연구 자율성 및 창의성 위축으로 연구 활동을 약화시킨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Kim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상의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연구의 사회적 책임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윤리

적,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bbie, E. (2007).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1th edition*. Thomson Higher Education.
- Baek, S. Y. (2006).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Comparing with quant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5(1), 239-254.
- Borg, W. R., & Gall, M. D. (1989).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5th ed.). Whiter Planins. Longman.
- Cho, H. S. (2012). The system, contents and problems on new bioethics and safety act. *Public Law Journal*, 13(4), 251-268.
- Cho, S. Y. (2018). A review of bioethics and the IRB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14(2), 1-17.
- Choi, E. S. (2000). 21st century Korean music education trends and future direction.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Quarterly Presentation Materials*, 1-16.
- Choi, J. H. (2011). Research methodology of music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2, 205-220.
- Chung, E. J., Kim, M. H., & Baik, S. J. (2021). Policy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s: Based on the U.S. single IRB mandate in the revised common rule.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24(2), 221-244.
- Creswell, J. W.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 Sage Publications.
- Henning, G. (1986). Quantitative methods in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TESOL Quarterly*, 20(4), 701-708.
- Jeon, Y. J. (2022). Analysis of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of high school 'Basic Artificial Intelligence' textbook.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5(1), 1-16.
- Jeong, J. E., & Seog, M. J. (2014). The research trends of music education in Korea by the analysis of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1), 165-188.

- Jo, G. H. (2013). Establishing bioethics at an international level: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s. *Bioethics Forum*, 2(1), 1-5.
- Ju, J. W. (2002).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application research cases of content analysis methods.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3(1), 29-55.
- Ju, S. J. (2019). Institutional review board'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in a university in South Korea. *Personalism Bioethics*, 9(1), 63-98.
- Kim, J. B., & Kim, J. S. (2014).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research ethic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41(2), 187-192.
- Kim, O. J., & Choi, E. K. (2006). Bioethic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bservational studies. *Korean Journal of Epidemiology*, 28(2), 129-137.
-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2025a). *The oldest and the largest music educators society in Korea*. Retrieved May 2, 2025, from <https://www.kmes.or.kr/?c=5/117>
-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2025b).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KMES*. Retrieved May 5, 2025, from <https://www.kmes.or.kr/?c=5/96>
- Lee, G. E., Kim, S. H., Kim, M. S., & Oh, E. G. (2017).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review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3), 287-304.
- Seog, M. J. (2004). The alternative approach of music education inquiry in Korea through current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 91-128.
- Seong, T. J., & Si, G. J. (2022). *Research methodology* (3rd ed.). Hakjisa.
- Won, Y. S. (2006). A study on the latest tendency in research of Korean music education.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24, 7-29.